

“시민군 생생한 증언 있었기에 제작 가능”

영화 '김군' 강상우 감독 들꽃영화상 대상

5·18 당시 찍힌 사진 속 인물 찾는 다큐지만원 북한군개입설 왜곡 낱알이 지적 민간인 조사 시작되어 더욱 의미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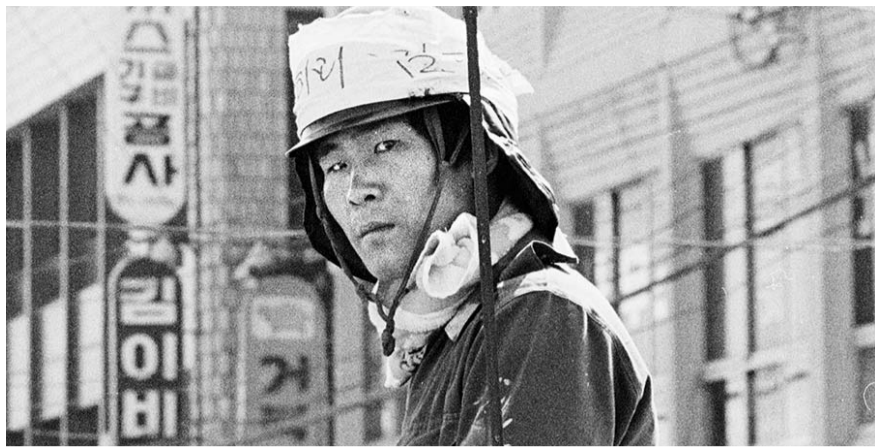
5·18을 소재로 한 강상우 감독의 영화 '김군'이 '제7회 들꽃영화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문학의집에서 열린 제7회 들꽃영화상 시상식에서 영화 '김군'을 제작한 강상우 감독이 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019년 5월 개봉한 '김군'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찍힌 흑백사진 속 인물을 찾아 나서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당시 시민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첫 영화다. 광주의 한 거리에서 포착된, 군용 트럭 위에서 군모를 쓰고 때론 눈을 카메라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사진. 누구냐 보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행방을 알지 못했던 '김'으로 기록된 사람을 영화는 천천히 쫓는다.

영화는 2015년지만원에 의해 북한특수군 '제1광수'로 지목된 한 시민군이 평범한 광주 시민이었음을 밝혀 내며, 사진 한 장을 단서로 관련된 시민들의 증언을 모으는 전개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



강상우 감독(왼쪽)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찍힌 시민군 모습.



으로 화제를 모았다. '광수'로 지목된 이들이 제보와 수 소문 끝에 광주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침착하고 차분하게 40년 전 그 날을 증언한다.

김 감독은 "지난해는 관객으로서 행복했다"며 "후보에 오른 독립영화들과 함께 들꽃영화상 후보에 오를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난 1년 반 동안 영화를 보며 행복했다. 1980년 5월에 사라진 김군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시상식 모토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다. 이제 서야 김군과 민간인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여러 가

지로 의미가 있다. 이 작품은 광주에서 저희 영화를 도와 주신 100여 명의 생존자 덕분에"이라고 전했다.

'김군'은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으며 20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 39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10선), 7회 무주산골영화제 무주관객상, 제44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들꽃영화상은 한국 저예산·독립영화를 재조명하고 독특하고 창조적인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2014년 제정됐으며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한국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롯데아울렛 남약점, 헌혈 캠페인 동참 헌혈증 기증



롯데아울렛 남약점(점장 김명일) 임직원과 고객 100명은 지난 22일 1층 광장에서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고 헌혈증을 기부했다. <롯데쇼핑 제공>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본부, 조손가정에 농수산물 꾸러미 전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률)가 최근 전남도시회복지협의회(회장 노진영)를 통해 전남지역 저소득 조손가정에 농수산물 꾸러미(5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농수산물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영농업체·식료품판매업체에서 구입했으며, 조손가정 123가구에 전달했다.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제공>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목포 사랑해아동센터와 협약 체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 제안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지부장 배준열)가 최근 목포시 사랑해지역아동센터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고, 지역에 정책을 제안하는 단체다.

업무협약을 통해 사랑해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을 아동권리모니터링단으로 선정한다. 이들은 실생활에서 느끼는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

배준열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지부장은 "지역사회가 보다 더 아동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동친화적인 사회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



다"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마음껏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장세득 회장 연임

사단법인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10대 회장으로 장세득(65·남광주농협) 회장이 연임됐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1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대의원 등 90여 명이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장세득 9대 회장을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농가주부모임 분광농협(박정자 분회장), 삼도농협(황금숙 분회장)이 우수분회상을, 서창농협(이정희 분회장), 평동농협(서성례 분회장)이 우수조직상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 강화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임광문) 교통안전과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위반단속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이번 활동에서 아광반사지 부착, 플래카드 게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사례 설명, 교통사고 예방법 등 교통안전홍보를 실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20주년 기획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MBC PICK X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아생여정(재)	00 본 어게인(재)	05 궁부가 머니?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호대 50 보보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①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③	30 미니다Q(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람(재)	
④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00 차총우돌 한국 유망기 스페셜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5 MBC 뉴스 30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MBC PICK X 저녁 같이 드실래요? 30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⑦	00 5.18 40주년 특집뉴스 -나눔과 연대로 부활하는 오늘 40 우리말 겨루기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⑧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복면가왕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저녁 같이 드실래요?	40 갖개스팅
⑩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00 본 어게인	40 MBC PICK 50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⑪	00 더 라이브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개는 훌륭하다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⑫	0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55 다큐 인사이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네트워크특선 <핑크피쉬>	20 나이트 라인 50 양극로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17:45 세미와 매직큐브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3:50 한국영화 100년을 돌아보다 -내 인생의 한국영화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40 마사와 곰	19:00 형사 가제트
08:00 당동댕 유치원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08:30 출동! 슈퍼윙스	15:00 해오와 해오	19:45 자이언트 팽TV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09:00 픽시	15: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중국어식 방랑가-소수 민족의 맛>
09:30 페파 피그	15:40 뽀롱뽀롱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낮은 마을에서 살아보기 1부 집도 절도 없이, 한 달만>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6:10 픽시(재)	22:40 야생의 지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0 당동댕 유치원(재)	23:45 EBS 명강
12:00 EBS 정오뉴스	17:00 EBS 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20 개구쟁이 스머프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5일(음 윤4월 3일 戊辰) ☎ 010-9790-8237

<p>36년생 달맞이꽃 복 받을 수도 있는 판국에 놓인다. 48년생 긴 급히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긴다. 60년생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추이를 관찰하자. 72년생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국세이다. 84년생 지금의 추세라면 성공을 확신해도 된다. 96년생 핵심 정국을 짚어서 처리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9, 71</p>	<p>42년생 정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54년생 바탕이 훤다면 절반의 성공은 보장 받은 셈이다. 66년생 숨은 근심이 보인다. 78년생 반추해 본다면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90년생 조절과 통제에 미숙하다면 화를 부르고 야 말 것이니 냉철하게 임하라. 02년생 흥과 복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14, 65</p>
<p>37년생 함께하는 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49년생 장해 요소를 제거하라. 61년생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유지 하고만 있으면 성과를 거두리라. 73년생 행운의 빛이 비춰오고 있느니라. 85년생 재수불공을 올린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97년생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55</p>	<p>31년생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만 이를 수 있다. 43년생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55년생 지금은 달걀 지 않을 지라도 수용하는 것이 낫다. 67년생 서로 진행 방향이 상반되니 인연이 박하다. 79년생 마무리 단계에서 정제할 수 있다. 91년생 복덕의 원인이 있으면 과보는 따르게 마련이다. 행운의 숫자 : 09, 90</p>
<p>38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50년생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요소들이 있다. 62년생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74년생 상하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86년생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98년생 바야흐로 길성을 향해 진입하는 길목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89, 66</p>	<p>32년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느니라. 44년생 가제는 편익을 알고 절대로 망심해서는 아니 된다. 56년생 선별된 언어 구사를 하는 것이 낫다. 68년생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중대사를 망각할 수 있다. 80년생 절대적이라고 치부한다면 오산이다. 92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할 소지가 많으니 낙심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7, 59</p>
<p>39년생 제대로 보여 줘버려라. 51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 63년생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75년생 다른 곳까지 옮겨가면서 더 확대되는 기세이다. 87년생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국면 전환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99년생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30, 94</p>	<p>33년생 끝부분에 중요한 핵심적 사실이 깃들여 있다. 45년생 영동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57년생 처음에 임할 때에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었지만 머지않아 적응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69년생 금상첨화의 기회이리라. 81년생 속 타는 일이 생겼지만 일시적이다. 93년생 의외로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40, 84</p>
<p>40년생 유사함이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무방하다. 52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64년생 침착하게 임하라. 76년생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 법이다. 88년생 단순해 보일지라도 실제 내막은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00년생 부담스러워왔던 짐을 털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78</p>	<p>34년생 오래 가지 못할 수도. 46년생 목표에 도전해도 되는 무난한 날이로다. 58년생 소인 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양태이다. 70년생 합리적인 조절이 좋은 선택으로 이어진다. 82년생 부작용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94년생 선택을 잘 해야만 적용된다. 행운의 숫자 : 37, 63</p>
<p>41년생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53년생 분명히 해줘야 뒤따라 오는 법이다. 65년생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들이 필요하다. 77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상대의 진정한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01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잡이 부러리라. 행운의 숫자 : 25, 80</p>	<p>35년생 복잡하기는 하지만 노력하면 양호해진다. 47년생 다시 본원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맞이한다. 59년생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71년생 투명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법이다. 83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95년생 점진적으로 행하라. 행운의 숫자 : 18, 50</p>